

# 눈 앞의 꽃 소식 알면 비로자나는 문 밖의 손님

전등사, 어느 500년에 살고 있나?

강화도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강화도는 우리 민족의 정기가 가장 뜨겁게 뭉쳐진 곳이며 긴 세월 집단의 고난을 견뎌 온 섬입니다. 지금은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건너다니므로 섬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지만, 강화도는 분명한 섬입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보다 가깝고 조선의 한양보다 가까이 전란을 맞은 왕들의 '피난 제일번지'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침탈사가 바로 강화도의 침탈사이고 강화도의 생명력이 한반도의 생명력입니다.

고려 때는 몽고군의 말발굽이,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의 칼날이, 그리고 조선말에는 서양열국들의 전함과 함포가 노리고 또 노렸던 곳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한반도의 혼란한 역사를 켜켜이 간직해 온 강화도는 가는 길에서는 오늘날도 해변부대와 초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국방의 자주적 역량이 무너진 고초를 너무나 빈번하게 겪어왔던 나라, 그 한 귀퉁이에서 가장 서러웠고 고통스러웠던 섬이기에 강화도는 가는 길에서 만나는 부대와 초소들은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침 강 건너 북쪽 땅에서는 로켓 발사를 두고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혼란스러운 봄날입니다.

절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강화도 하면 전등사(傳燈寺)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전등사 말고도 많은 절이 있지만, 강화도를 대표하는 절은 전등사입니다. 전등사의 역사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역사와 궤를 함께 합니다. 고구려에 불교를 전한, 공식적으로 따지면 소수림왕 2년(372년) 아도화상이 경상도의 일선(一善, 지금의 선산)에서 불교를 전파하기 이전에 전등사를 개산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절 이름은 진중사(眞宗寺)였는데 전등사에는 고려 중기 이전의 기록이 전하지 않아 확실한 내막을 알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란을 피해 달려 온 왕들의 행차와 나라의 문서를 보관하는 사고(史庫)의 건립 등으로 왕궁과도 같은 격을 유지하면서 국왕에서 민초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는 의지처의 역할을 해 온 절이 전등사입니다.

봄 햇살은 묘합니다. 만물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 주면서도 못 생명들을 가릴가릴한 갈증에 시달리게 합니다. 남김없이 꽃이 피어 아름다운데 종일 회썬연 안개가 먼 산을 감싸고 있어 눈앞의 풍경들만 보게 합니다. 너무 먼 곳의 꽃이까지 눈길에 닿으면 병이라도 날까봐 몽롱한 햇살로 천지를 바짝바짝 마르게 만드느니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마른 몸과 마음에 사랑의 불길이 붙으면, 화려한 화르르 서럽게 타오르고 말 것 같은 그런 사월의 어느 하루 초지대교를 건너 강화에 이릅니다.

정족산성 남문으로 들어서니 환하게 불을 밝힌 매



전등사 부도밭 전경. 작은 사진은 용의 발이 강조된 서운 스님의 부도 탑신석.



김포 문수사 풍담 대사 부도

## 서운 스님 부도 높은 기단 위 섬세한 조각 일품

발톱 날카롭게 치켜세운 용 조각 독특... 말세중생 향한 엄중함 '경고'인 듯

아도 화상 머물던 '최초의 절' 자세한 기록은 없어

화나무 대어섯 그루가 짙은 향기로 길을 막아줍니다. '아이쿠,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진한 매화 향기에는 딱 한번만 코를 갖다 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향기를 맡아다니는 취재도 뭐고 집어치우고 인삼 막걸리 통에나 빠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처럼 타오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절.

정족산성 성벽들이 능선을 향해 고즈넉한 길을 열고 손짓을 합니다. 아름드리 굵은 소나무들이 길을 안내하느라 보기 좋게 서 있고 그 옆으로는 무더기 무더기 진달래가 산비둘기 울음소리를 받아먹느라 붉은 입술을 달짝입니다. 그렇게 한 쪽 그림 속에 들어선 듯 작각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왼쪽을 바라보니 부도밭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네 귀에 앙증맞은 용두가 새겨진 돌다리를 건너 부도밭 가는 길 옆 군데군데에 붉은 치마저고리를 해 입은 누님처럼 진달래 무더기들이 서 있습니다.

전등사 부도밭은 단정합니다. 한반도에 처음 부처님 법이 들어오던 즈음에 이미 불연(佛緣)의 씨앗이 싹을 틔웠건만, 슬한 고난의 역사를 견뎌내느라 거쳐 간 고승대덕들의 영골을 모시고 돌비를 세울 여

지가 없었던가 봅니다. 전등사 부도밭에는 현대의 고승 이목당(貳木堂) 서운대종사(瑞雲大宗師 1903-1995)의 부도가 높직하게 위엄을 갖추고 모셔져 있습니다. 부도 앞에는 검은 몸통의 탑비가 서 있고 그 왼쪽으로는 인공담대(仁公潭臺) 노근선사의 부도가 나란히 서 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옛 석공 하나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출한 부도밭이지만 서운 스님의 부도는 웅장한 팔각원당형을 계승 했는데, 운룡문양에서 용의 두 발이 힘차게 강조된 것이 특이합니다. 몸통이나 얼굴을 작게 묘사한 반면 앞뒤로 두 발과 발톱을 상당히 크게 강조했습니다. 높다랗게 화강암을 쌓아 올린 기단이 주는 위엄만으로도 마음의 절박이 되는 데 발톱을 세차게 내세운 용을 바라보면서 연방 기가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운 스님의 부도 정면에 망연히 서서, 용의 발과 발톱을 그렇게 강하게 드러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부분의 아름답고 정교한 조각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두드러진 저 발과 발톱! 금시조를 닮아채려는 동자 같기도 하고 연치없고 부도덕한 놈들의 따귀를 휘갈치 버리려는 자세 같기도 합니다. 얼굴이 갑

지가 뜨거워집니다.

<금강경>에 '여래멸후 후오백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학자들은 부처님이 입멸한 후 불법(佛法)의 미래를 500년 단위로 다섯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즉, 첫째 500년은 해탈견고(解脫堅固)라 해 해탈에 몰두하는 시대로, 두 번째 500년은 선정에 몰두하는 선정견고, 세 번째는 교화에 몰두하는 다문견고, 네 번째는 절 짓기에 몰두하는 탑사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투쟁이 난무하는 투쟁견고의 시대로 구분했습니다. 지금은 이 가운데 어느 시대에 해당할까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시대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구분한 이 다섯 시대의 특징들은 어느 시대에도 있게 마련입니다. 해탈 선정 교화 가람불사 투쟁이 모두 한 시대에 한 덩어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즉비(卽非)논리'대로 이 다섯은 곧 다섯이 아니고 그 이름이 다섯 가지로 나뉘어졌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사는 중생이라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뿐인 허상에 끌려 다니지 말고 공적(空寂)하고 명료한 진리의 원음을 체득하고 법계에 종만한 깨달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운 스님의 부도에 저렇게 강하게 발톱을 치켜세운 용이 조각된 것은, 투쟁의 시대 혹은 가람불사에 만 뉘를 놓는 시대로 치닫는 어두운 중생들을 향한 '경고'가 아닐 런지요. 만약 그렇다면 강화도 전등사 부도밭은 현대의 고승 서운 스님이 생전의 그 활달 자재한 기풍을 용의 발톱처럼 곧추 세우고 있는 저런 저런 법석이겠습니다.

검은 빛이 오히려 투명한 서운 스님 비석은 스님이 원적에 든 2년 뒤에 세워졌습니다. 황악산 직지사의 회주인 녹원(綠園) 스님이 찬하고 조경(草丁) 권창운 선생의 글씨입니다.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비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대목을 만납니다.

탐담십년미견화(探談十年未見花)  
안전홍화화작약(眼前紅花花灼灼)  
산문숙정천지개(山門肅靜天地開)  
비로자나문의객(毗盧遮那門外客)  
꽃을 찾아 10년을 방황 했으나  
이제야 눈앞에 붉은 꽃 타고 있는 것을 보겠네.  
산속의 고요 속에 천지를 여니  
비로자나법신불이 문 밖의 손님일세.

서운 스님이 경성을 체류하고 읊은 오도송입니다. 앞의 두 구절은 동음반복을 통한 활달한 기상이 솟구치고 뒤의 두 구절은 깨달은 사람의 기교하고 장대한 풍모가 엿보입니다. 서운 스님이 깨침의 눈으로 만난 불 산의 진달래 무더기들도 저렇게 불타올랐을 겁니다. 타오르는 진달래 무더기를 보는 안목만으로도 서운 스님은 해탈견고의 시대를 주름잡던 결승이 분명합니다. 비문의 마지막 대목 '임종계'를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형상 없지만 두드리면 곧 신행스러울 있고/삼독으로 화방지옥을 평생 지냈다/ 이제 몸 버리고 고탈에 돌아가니/ 차가운 달 빛 산이 진리의 몸이로다.'

서운 스님이 바라보았을 꽃무더기들은 정족산성 안에도 밖에도 넘치도록 피어 있고 정수사 우측 능선의 함허(1376-1433)스님 부도 주변에서도 불타고 있습니다. 강화대교 건너 김포 땅 문수산 계곡 군부대를 돌아 올라간 능선에 위치한 풍담(1592-1665)스님의 부도 곁에서도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꽃들은 '후500세'의 중생들이 다 해탈할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대고승비문>서리조,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갑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연구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재원. <잊혀진 가람탐방> 장지현, 어시어문. 등.

**“드디어 기다리시던 하권이 출간되었습니다!!”**

#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

**두 번째 백초 스님의**

- ※ 귀장술12신공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12신공의 금전제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긴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역운 차귀탈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베풀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인관기능 여부
- ※ 소송·관재사의 승계 판단법
- ※ 보고싶은 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성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공 숨어있는 조상귀귀법
- ※ 12신공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前世)법
- ※ 前生의 夫婦(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現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빙의)작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귀)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하권/720면/청가 120,000

**百超律歷學堂** | **비법전수중**

입금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2) 3667-4446  
010-3813-4443